



경찰연합신문 모바일 보기



www.police.go.kr



해양경찰청

## 민주당 진교훈 강서구청장 당선...56.52% 득표

### 민주 "尹정부에 준엄한 질책"...자축 속 국정쇄신 촉구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가 11일 오후 강서구 마곡동 캠프사무실에서 당선 이 확실시 되자 꽃목걸이를 걸고 기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를 자축하면서 "국민의 승리이자 민생 파탄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고 평가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бри핑에서 "이번 선거 결과는 무능과 불통, 독선으로 얼룩진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질책이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권 수석대변인은 "추락하는 민생과 경제에도 조금의 반성도 없이 폭주하는 윤석열 정부에 브레이크를 걸어 주신 국민께 거듭 감사드립니다"며 "윤석열 정부는 무능과 실정에서 벗어나 무너지는 민생과 경제를 지키라는 국민의 경고를

새기라"고 촉구했다. 이어 "보궐선거 원인 제공자를 사면하고 공천해 사법부와 국민을 무시한 오만함에서도 벗어나라"며 "야당을 탄압하고 언론을 통제하려는 시도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오만과 독선, 불통의 국정운영을 버리고 국정기조 대전환, 국정 쇄신에 나서라"며 "민주당은 더욱 겸손하고 치열한 자세로 민생을 챙기고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정권 심판론"을 앞세워 승리를 다짐했던 민주당은 진 후보가 두 자릿수 격차의 득표율로 이기자 고무된 분위기였다. 결과의 윤곽이 드러난 이날 오후 11시 30분께 홍익표 원내대표와 정청래·박찬대·서영교·장경태·서은숙 최고위원 등 당 소속 의원들은 밝은 표정으로 진 후보 선거사무소에 모였다.

홍 원내대표 등은 진 후보 부부가 들어서자 일일이 악수하며 승리를 축하했다. 지지자들은 손뼉을 치면서 '진교훈'을 연호했다. 꽃다발을 받은 진 후보는 "이번 선거는 상식의 승리, 원칙의 승리, 강서구민의 위대한 승리"라며 "그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본 일조를 아껴 구정을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진 후보의 승리가 확정되자 당 소속 의원들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선거 결과를 자축하며 입을 모아 '현 정부에 대한 심판'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국민이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심판했다"며 "국민의 압도적 승리"라고 평가했다. 김성주 의원은 "민주당은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여 민생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 송원기 기자

## Photo News



### 어르신 독감 백신 무료 예방접종 시작

고령자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무료 예방접종이 시작된 11일 오후 서울 광진구 헤민병원에서 의료진이 어르신에게 독감 예방주사를 놓고 있다. 2023~2024절기 어르신 독감 백신 접종사업은 이날 75세 이상 고령자를 시작으로 연령대 별 순차 접종으로 진행된다.

## 김행 여가장관 후보자 자진사퇴

### "선당후사 자세로 결심"

### "대통령께 누가 돼 죄송"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당원으로서 선당후사의 자세로 결심했다"며 후보자직을 자진 사퇴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에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위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이 길뿐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사의를 밝혔다. 그는 "인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께 누가 돼 죄송하다"며 "본인의 사퇴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늘을 우러라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회사(위키트리)를 운영했다"며 "불법은 저지른 적은 결코 없다. 제게 주어진 방법으로 결백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그동안 저를 믿어준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 오윤주 기자



김 후보자는 그간 인사청문 과정에서 '주식 파킹' 의혹과 인사청문회 중도 이탈 등으로 야권의 사퇴 요구를 받아왔다. 이날 국민의힘 비공개 회의에서도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대통령실에 건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자 김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도 영향을 끼쳤다고 전해졌다. 김 후보자가 입장문을 "여가부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긴 시간을 보냈다. 특히 어제 늦게까지 강서구 보궐선거를 지켜봤다"로 시작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라고 한다. / 오윤주 기자

## 이재명 '백현동 의혹' 먼저 불구속 기소...검찰 "대장동에 병합"

### 구속영장 기각 보름만...성남시장 재임시절 사건·유사 범행 구조 고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27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보름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

2014년 4월~2018년 3월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 특혜를 몰아줘 1천356억원의 이익을 독차지하게 하고, 사업에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정 회장은 운영하는 성남알앤디PFV는 단독으로 백현동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파트 건설 목적의 용도지역 4단계 상향, 용적률 상승,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 용벽 설치 승인, 기부채납 대상 변경 등의

특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의 성남시장 선거를 몰심양면 도와준 '선거 브로커' 김인섭 씨에게 보답하고자 그의 청탁에 따라 각종 인허가권을 행사해준 '권력형 지역 토착비리 사건'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로비 대가로 정 회장으로부터 77억원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앞서 기소된 대장동·위례 특혜 사건과 함께 1심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백현동 특혜 사건을 먼저 기소하기로 했다. / 권정석 기자

백현동 사건과 대장동·위례 사건 모두가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발생한 범행으로 개발업자와 브로커에게 개발이익을 몰아주는 유사한 범행 구조를 가지고 있고, 피고인들이 동일한 데다 대장동·위례 사건 재판이 시작 단계인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 사건 재판은 3월 기소된 후 6개월가량의 준비절차를 마치고 이달 6일 첫 정식 재판이 열렸다. 검찰 관계자는 "먼저 진행되는 사건이 있어서 병합하는 차원에서 백현동 사건을 먼저 기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소 이후 법원에서 두 사건의 병합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 권정석 기자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 HRDK로 능력을 짓다

## K-HRD를 짓는 글로벌 인적자원개발 파트너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평생능력개발, 국가자격시험, 해외취업, 외국인근로자고용, 숙련기술장려, 일학습병행,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블라인드 채용 등 국민의 일자리 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까지 아우르는 글로벌 인적자원개발 파트너로 능력중심사회를 선도해갑니다.

# 합참의장 “하마스와는 ‘다른 무력’ 갖춘 적과 대치하는 상황”

## 김승겸 “적의 어떤 도발도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12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과 관련해 “우리 군은 하마스와는 또 다른 무력을 갖추고 있는 적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합참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밝히고 “적의 어떠한 도발과 침략에도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수 있는 확고한 결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마스보다 훨씬 강력한 공격수단을 갖춘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응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우리 군은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불안정한 역내 안보 상황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지키고,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고자 모든 역량을 기울여 왔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또한 “긴밀한 한미 공조를 통해 한미동맹의 확장역제 실행력을 높이



’23 쌍룡훈련 현장 방문한 김승겸 합참의장

고, 한국형 3축 체계의 능력과 태세를 확충함으로써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억제와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조건에 기초한 전작전 전환을 계획에 따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합동성을 기반으로 우주·사이

버·전자기 등 새로운 영역에서의 주도권 확보와 미래 안보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군사전략 발전과 전력 증강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합참은 이날 국방위 국감 업무보고에서 “한국형 3축 체계의 운영 태세를 강화하겠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사용 징후가

명백히 식별된 경우 자위권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개념과 작전 수행체계를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킬체인(Kill Chain), 대량응징보복(KMPR)을 말한다.

합참은 북한의 핵·미사일 체계를 미사일 발사 전후 교란, 파괴할 수 있도록 작전개념을 발전시키겠다면서 핵·미사일 위협 대응 합동·연합 훈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전략적 억제·대응 능력을 통합 운용하고, 관련 전력의 발전을 주도하는 전략사령부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전략사령부는 올해 1월 합참에 창설된 ‘핵·WMD 대응본부’를 모체로 내년에도 창설될 예정이다.

/ 박준 기자



다시 구속 기소에 선 박영수 전 특검

# 박영수, 법정서 ‘50억 클럽’ 전면부인 “청탁·약속 없었다”

## “공소사실 계속 변하고 불특정” 검찰 “10년 전 사건, 최대한 특정”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검검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 전 특검의 변호인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검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박 전 특검은 민간업자들로 부터 우리은행을 대장동 컨소시엄에 참여시키거나 여신의향서를 발급해달라고 청탁받은 적 없다”며 “이를 대가로 200억원과 주택부지 등을 약속받은 사실도 전혀 없고, 소위 ‘50억 클럽’은 김만배 씨 본인이 허위라고 증언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장동 개발사업의 주관사 하나은행이 받은 최종 수수료가 300억원인데, 우리은행은 사업에 한 푼도 투자하지 않았음에도 이에 버금가는 액수를 박 전 특검이 약속받았다는 것은 상식에 동떨어진 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박 전 특검이 민간 업자들로 부터 총 19억원을 수수한 혐의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다만 박 전 특검이 김만배 씨 등에게서 5억원을 받은 혐의에 관해선 “5억원을 계좌로 받아 다시 전달한 사실은 인정한다”며 “이는 ‘박영수가 투자했다’고 광고하려던 김씨 등에게 계좌를 빌려준 것이지, 돈

을 수수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특검법상 수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 측도 “김씨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거나 약속받은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 측은 “공소 사실이 구체적이지 않고 구속영장 청구서와 공소장의 세부 내용이 변경됐다”며 방어권이 제약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이에 “이 사건은 10년 전 일로 범행 일시를 최대한 특정한 것”이라며 “수사로 확보한 증거에 따라 범죄사실을 특정해가는 만큼 영장 청구서와 공소장의 범죄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반박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3일~2015년 4월7일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을 약속받고 일부를 실제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양 전 특검보를 통해 민간업자 남욱 씨 등으로부터 현금 3억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해 김씨 등으로부터 50억원을 약속받았으며, 5억원을 받은 뒤 이를 다시 화천대유자산관리 증자대금 명목으로 보내 대장동 사업 지분을 확보했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 특검 재직 기간 딸과 공모해 화천대유에서 ‘단기 대여금’으로 가장한 돈 11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 민경욱 기자

# 이스라엘 지상전 명령만 남았다...바이든, “전쟁법 준수” 당부

## 지상군 투입 준비·확전 우려 고조...“과거 작전 규모 넘어설 것”



지난 11일(현지시간) 이스라엘 메르카바 탱크가 레바논과의 국경 근처에 위치해 있는 모습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촉발된 전쟁이 12일(현지시간) 옛새째에 들어선 가운데 가자지구를 겨냥한 이스라엘의 지상전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 공습에 나서면서 확전 우려도 가시화하는 양상이다.

영국 BBC 방송은 이날 대규모 이스라엘 병력과 탱크, 장갑차가 이미 이스라엘

남부에 집결했다면서 이스라엘이 곧 가자지구를 공격해 들어갈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전했다.

이미 수십만명에 이르는 예비군을 소집한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는 물론 레바논과의 국경 주변에 탱크와 중화기를 밀집시킨 채 하마스와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 등과 산발적인 교전을 벌이고 있다. 다만 지상 작전 명령이 언제 떨어질

지, 이스라엘 정부의 최종 목표가 무엇이 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현지에서는 이스라엘군(IDF)의 가자지구 공습이 강화되는 최근 움직임이 지상군 투입을 위한 사전 작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스라엘 남부에서 100명이 넘는 민간인을 납치한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의 민간 목표물을 경고 없이 타격할 때마다 인질 1명씩을 살해하겠다고 지난 9일 경고했으나 공습의 강도는 더욱 거세지는 모양새다.

이스라엘 관리들이 가자지구에서 하마스를 제거하고 새로운 중동을 구축하겠다고 공언하면서 향후 이뤄질 지상 작전은 과거 있었던 공격의 규모와 범위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미 지난 닷새간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팔레스타인 측에서 사망한 사람의 수는 2014년 ‘가자 전쟁’ 당시 6주간 숨진

사람의 거의 절반에 이른다.

이스라엘은 향후 며칠간 가자지구를 계속 공습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상전 개시까지 하마스의 전력을 최대한 약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스라엘군은 이처럼 가자지구 지상전을 준비하면서 11일에는 하마스와 연대하는 헤즈볼라의 대전자 공격에 대응해 레바논 남부를 공습했다. 가자지구에 이어 이스라엘과 레바논 국경 지역에서 ‘제2의 전선’이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스라엘이 공습을 강화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남부와 중부 등을 겨냥한 하마스의 로켓 공격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11일까지 양측의 사망자는 2천300명을 넘어섰고, 부상자도 8천명 이상이다. 지난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 이후 이스라엘에서는 군인 169명을 포함해 1천200명이 숨지고 3천7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팔레스타인에서는 가자지구에서만 어린이 260명을 포함해 최소 1천100명이 숨지고 5천339명이 다쳤다고 현지 보건 당국이 밝혔다.

/ 안병호 기자

LG HelloVision

Hello rental

# 지금 사고 나눠내자!

## 온라인 최저가보다 최대 72% 저렴하게!



※ 최저가 비교기준 : 22년 3월 N사 쇼핑 기준, 삼성TV(KU50UA7050FXKR), KB계류카드 전월 30만원 사용에 따른 할인 적용 시 ※ 월 렌탈료는 품목 및 알부 기간에 따라 상의

새로운 가전 구매 트렌드

LG헬로비전 헬로렌탈

상담문의 1855-1082



# 내년 만5세 유치원비 지원금 5만원 인상 추진...35만→40만원

교육부가 만 5세 아동에 대한 정부의 유아학비 지원금을 현행보다 5만원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상진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보통합에 따른 유치원·어린이집 지원 계획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단장은 "2023년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사업을 통해 각 지역에서 (유치원·어린이집에) 급식비 등을 일부 지원하고 그 외에도 여러 사업을 하고 있다며 "(유

아학비 지원금은) 지방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약 5만원 인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3~5세 유아교육을 위해 공립유치원생의 경우 월 15만원(누리과정비 10만원+방과후과정비 5만원), 사립유치원생은 월 35만원(누리과정비 28만원+방과후과정비 7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각 20만원과 40만원으로 끌어 올리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

령을 개정해 교육청이 보통교부금으로 유아학비를 일부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국회 예산안 심의가 진행 중이고 시행령도 마련 중인 상황이라 단정하기 어렵지만 5만원 정도 인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내년에는 우선 만 5세에게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연령을 3~4세까지 낮출 계획이다.

이상진 단장은 교육감들도 이러한 방

안에 찬성하느냐는 서병수 의원(국민의힘)의 질의에 "일부 다른 의견을 표명하는 분이 있다"면서도 "충분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또한 기존에 발표한 대로 2025년 유치원·어린이집 통합모형을 출범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정부조직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중앙단위에서의 업무 이관과 동시에, 지방단위에서의 업무 이관도 (순차적으로) 가능해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한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재일본대한민국부인회 초청 차담회에서 재일한국부인회 도쿄도본부 고문이자 중앙본부 회장인 최금분 할머니의 부인회 활동에 대한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 김건희 여사, 재일한국부인회 초청 차담회 "한일 협력 강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1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 재일본 대한민국부인회(재일한국부인회) 간부들을 초청해 차담회를 열어 활동을 격려했다.

1949년 결성된 재일한국부인회는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 여성들로 구성된 단체로, 현재 중앙본부와 44개 지방본부에서 총 10만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김 여사는 "대한민국의 딸로서, 대한민국의 어머니로서 우리 동포사회와 한일 간 교류를 위해 애쓰고 계시다"며 참석자들에게 감사사를 전했다. 이어 "한국과 일본은 역사적으로 서로 경쟁하고 협력하며 성장한 사이"라며 "양국이 협력을 강화해 국제사회에서 더욱 큰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재일동포를 비롯한 우리 동포들이 더 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저 또한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유대영 재일한국부인회 중앙본부 회장은 "최근 한일교류가 여러 분야에서 활발해지고 있고, 일본에서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조현자 히로시마현 본부 회장은 지난 5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의 당시 한일 정상회담이 최초로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의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에 공동 참배한 데 대해 "큰 용기와 위로를 받았다"고 말했다.

/ 송유영 기자

## 조규홍 "공공의대 설립 신중하...2025년부터 의대정원 확충 노력" 진료과목 양극화 문제에 복지장관 "의사 개인 비난 못해...제도적 뒷받침 필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의사 면허가 있다면 어떤 진료과목을 택할 것이라는 질문에 "(다들) 근무여건 좋고 소득 올릴 수 있는 쪽에 몰리지 않겠나"라고 애둘러 말했다.

조 장관은 이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이고, 의대 정원 확충 등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역에서 근무할 의사를 뽑는 공공의대 설립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른바 '피안성'(피부과·안과·성형외과), '정재영'(정신건강의학과·재활의학과·영상의학과)으로 불리는 인기 진료과목을 예로 들며 "의사 면허를 취득하면 어떤 과목을 지원하겠느냐"고 물었다.



답변하는 보건복지부 장관

이에 조 장관은 "상대적으로 근무 여건이 좋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쪽에 몰릴 것"이라고 답했다.

조 장관은 필수 의료 분야의 전공의 지원 급감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고, 근무 여건 등 여러 가지가 얽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의사 개인을 비난할 수는 없고,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는 (진료

과목 양극화가) 단기간에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지역 간, 과목 간 불균형을 해소하려면 정책 패키지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 정원 확대에 관해서는 "의사 수 확충은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추고 추진하고 있다"며 "의대 정원 규모도 2025년 입시부터 늘어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천58명으로 동결돼 왔다. 복지위 소속 정춘숙 의원실이 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 현재 국내 의대 졸업자는 인구 10만명당 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3.6명의 56% 수준이다.

의대 졸업자가 2007년 이후 OECD 국가에서 느는 데 비해 한국은 줄면서 전체 의사 수 차이로 이어지고 있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1천명씩 늘리면 2035년에는 인구 1천명당 의사 수(한의사 제외)는 2.88명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 오창민 기자

KB금융그룹 | 국민사랑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 금융을 넘어 환경까지 KB증권이 함께 합니다

CHANGE \*<sub>KB</sub>  
OUR LIFE

Change our life  
플로깅!

'22 양양 인구해변  
'23 부산 해운대

깨비증권 그린로드  
(도심 숲) 조성!

'22 난지 캠핑장  
'23 천왕산 캠핑장

자원순환 및  
탄소저감 시행!

'22 제주 푸른컵(공유컵) 제작  
'23 사내 폐가전 회수, 재활용

\*<sub>KB</sub> KB증권

## 전세사기 피해 우려된다면...‘임차인 최우선변제권’ 확인하세요 적용 기준 지역마다 달라...전세사기특별법 적용 가능 여부도 살펴야



최근 불거진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처럼 집주인의 파산이나 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1일 경기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러한 대규모 전세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금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규모 미반환 사태와 연루된 물건들의 경우 여러 개 담보가 공동 설정돼 있거나, 대출을 받아 매입한 뒤 전세금으로 다른 물건을 사들인 사례가 상당수여서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럴 경우 임차한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서 낙찰되더라도 우선변제권을 가진 은행이 낙찰 대금을 먼저 가져가고, 세입자는 후순위로 밀려 남은 대금을 배당받게 돼 피해복구가 쉽지 않다.

이때 세입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최우선변제권이다.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기준을 충족한 세입자에 한해 정해진 액수를 선순위 근저당보다 먼저 배당해주는 방식이다.

최우선변제권의 적용 기준은 지역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다. 올해 2월 21일 이후 기준 서울은 보증금 1억6천500만원 이내일 경우 5천500만원을, 여과필역제권역 및 수도권(서울 제외)은 보증금 1억4천500만원 이내일 경우 4천800만원을 변제받을 수 있다. 수원의 경우 여과필역제권역 및 수도권에 해당한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다. 적용 기준이 되는 보증금 액수는 2년 여에 한 번꼴로 갱신되며 점차 올라가는데, 최우선변제권의 적용 기준은 임차계약 체결일이 아닌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담보물건의 점수일을 따르게 돼 있다.

예컨대 올해 5월에 수원 지역에서 보증금 1억3천만원으로 계

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해당 건물의 근저당이 2021년 5월 10일 이전에 설정됐다면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임차계약 시점의 보증금 기준은 1억4천500만원 이내이지만, 근저당 설정 시점의 보증금 기준은 1억원 이내이기 때문이다.

기준에 맞지 않아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면 '전세사기특별법' 피해 신청을 해야 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최우선변제금 수준의 금액을 소득 및 자산 요건에 구애받지 않고 10년간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우선매수권,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감경 등 세금 감면, 긴급생계비 및 의료비 등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특별법 피해 신청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이하 센터)에서 할 수 있다. 신청서류는 비치돼 있으며,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서류들을 지참한 상태에서 방문해야 한다.

전날까지 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이번 전세 사기 의혹 사건 관련 피해 신고는 모두 297건이다. 센터는 신고자들이 전세사기특별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1차 심사하고 법률 자문 등을 제공한다.

피해 복구와는 다소 연관성이 낮지만,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도 빠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고소인이 다수일 경우 보다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고, 임대인 스스로 재산을 처분해 피해 복구 노력을 하게끔 압박하는 수단도 될 수 있다.

경찰 고소를 위해서 임대차 서류와 중개대상물 확인서, 보증금 이체내역 서류 등을 지참해야 한다.

한편 이날 낮 12시 기준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는 이번 전세 사기 의혹과 관련해 73건의 고소장이 접수돼 있다. 고소장에 적시된 피해액은 총 90억여원이다.

고소인 중에는 아직 계약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나, 임대인 인정보다 일가가 연락을 끊은 채 잠적하자 조만간 피해가 현실화할 것을 걱정해 경찰서를 찾은 이들도 많다고 경찰은 전했다.

정씨 일가가 세운 부동산 임대업 관련 법인은 18곳이며, 이들이 보유한 건물은 확인된 것만 5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건물에 있는 오피스텔이나 빌라는 총 몇 채인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계약의 규모가 커서 피해 신고 역시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설명했다.

/ 박재호 기자

# 김기현 “낮은 자세로 분골쇄신...수도권 맞춤형 대안 마련할 것”

## “패인 냉철히 분석하고 총선 승리 특단대책 강구하겠다”



발언하는 김기현 대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2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와 관련해 “결과를 존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성찰하면서 더욱 분골쇄신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진심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강서구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 당으로선 험지로서 녹록한 여건이 아니었음에도 강서구민 민심을 받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선거운동에 임해

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께 당 대표로서 감사의 인사와 함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이번 선거의 패인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총선 승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상대적으로 우리 당이 약세인 지역과 또 수도권 등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도록 맞춤형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더욱 낮은 자세로 민심에 귀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 송유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野 “민주당 승리 아니라 국정 심판”

## 낮은 자세로 ‘민생’ 다짐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완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이 표정 관리에 들어간 모습이다.

지난해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연패 고리를 끊은 데 대한 성취감도 크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번 승리가 자만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우려도 상존한다는 게 당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당 지도부의 12일 공식 메시지는 전날 밤 환호하던 모습과는 달리 ‘낮은 자세’를 유지하며 더욱 적극적으로 민생을 살피겠다는 쪽에 초점이 맞춰졌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선거 결과는 민주당에 ‘제대로 하라’는 기회를 주신 것”이라며 “국민이 주신 기회를 겸허히 받들겠다”고 말했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 국정 폭주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며 “국민의

삶에 들어가 민생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민생이 최우선이라는 큰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이번 보궐선거까지 승리하면서 민주당은 ‘이재명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할 발판을 마련했다.

홍 원내대표는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어쨌든 선거 결과가 좋아 이 대표 체제가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여지가 생겼다”며 “한 달여간 위기를 매우 잘 헤치고 나왔다”고 평가했다.

조승천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 대표 표심 되면 (국회의원) 배지 한 번 더 달고 말고가 큰 문제는 아니잖나”라며 “뒷발 출마를 고집하면 당에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 백현우 기자

# 해수장관 “해양 방사능 모니터링 늘리고 수산업계 지원 확대”

## 3조원 투입 어촌활력증진사업·최대 1조원 해운산업 위기대응펀드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12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해양 방사능 모니터링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해수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고 있다”면서 “현재 200개 정점에서 실시하는 해양 방사능 모니터링을 내년에는 243개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산물에 대해서도 생산 해역, 생산단계, 유통단계의 3중 검사체계를 구축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 하고 있다.

조 장관은 또한 “수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예비비 800억 원을 포함한 1천440억원을 활용해 소비 활성화 정책을 시행 중이며, 내년에는 관

련 예산을 더욱 확대해 우리 수산업계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해양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해운물류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도

소개했다.

그는 3조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도 직불금을 지급하는 등 어촌 소멸을 막기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최대 1조원 규모의 해운산업 위기대응펀드를 조성해 선사 경영안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항 진해신항과 광양항을 한국형 스마트항만으로 구축해 항만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규제혁신을 통해 항만배후단지 등 적기에 개발·공급해 동북아 물류 중심의 위상을 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자율운항선박 핵심 기술과 디지털 해상교통 플랫폼 등 첨단 해양모빌리티 기술 개발에 2030년까지 1조3천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 최혜원 기자

# 북한, 김영호 통일장관에 “미치광이, 역대 최고 매국 역적”

## 선전매체들 이달 들어 김영호 장관 실명 비난 개시

북한의 대외 선전매체들이 일제히 김영호 통일부 장관에 막말을 퍼부으며 비난하고 나섰다. 대남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TV’는 12일 “괴뢰 지역에서 매일 같이 핏대를 돋우며 대결 악담을 쏟아내는 미치광이가 나타났다. 바로 괴뢰 통일부장관 김영호”라고 폭언했다.

이어 “반공화국 대결 의식에 찌들대로 찌든 이 자는 범죄적 망동으로 악명을 떨친 역대 괴뢰 통일부 장관들을 능가하는 매국 역적”이라고 몰아붙였다.

선전매체 ‘메아리’ 역시 이날 “괴뢰 내부에서 ‘통일부’ 장관 김영호 놈에 대한 비난과 규탄이 높아간다”며 “기고만장하

여 설쳐대고 있는 김영호 놈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야 말 것”이라고 저주했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도 이날 김 장관을 ‘반(反)통일부 장관’이라 칭하며 “악명높은 대북 강경론자 김영호가 장관 자리에 앉은 후부터 조선반도(한반도) 정세의 긴장만을 부추기는 통일부의 백해무익한 망동이 극도에 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북한은 줄곧 통일부를 강한 톤으로 비난해 왔지만 지난 7월 28일 취임한 김 장관에 대한 실명 비난은 최근 시작했다.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가 지난 9일 “괴뢰 통일부 장관 김영호 놈과 차관 문

승현 놈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제사회가 일치단결해 대북 압박을 지속하면 북이 변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느니 하는 악담들을 계속 쉼터대다(떠들어댄다)”고 포문을 열었다.

10일엔 선전매체 ‘통일의메아리’가 좌파 지식인에서 ‘뉴라이트’로 경로를 바꿨던 김 장관의 과거 이력을 들어 “학생 운동권 출신으로서 ‘사상 전향’을 한 변절자”라고 매도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남북관계 파탄 원인을 전가하면서 그 책임을 통일부 장관에게 몰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 이영찬 기자

# 진교훈 강서구청장, 바로 업무시작...첫 행보는 민생현장 방문

## 안전센터·재개발추진 지역·시장 찾아...‘안전·안심·민생 구청장’ 강조



참배하는 진교훈 강서구청장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12일 당선 후 첫 일정으로 관할 지역 내 안전센터와 재개발 추진 지역 방문에 나섰다. 당선 후 구청장으로서 첫 행보이자 민생 행보다. 구에 따르면 진 구청장은 보궐선거 개표로 당선이 확정된 직후인 이날 오전 1시 40분께 당선증을 수령하고 업무를 시작했다.

구청장 공식 업무 첫날인 이날 오전 청사 출근에 앞서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한 뒤 오전 9시 10분께 구청에 나왔

다. 진 구청장은 이어 방화 1동 안전관제센터와 화곡2동의 공공주택 재개발추진 지역을 둘러보고 현안을 점검한다.

오후에도 화곡본동시장을 찾아 민생 행보를 이어간다. 경찰 출신인 진 구청장은 이번 보궐선거 기간에 ‘안전·안심·민생 구청장’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범죄 예방과 약자 보호, 공공질서·안녕 유지를 포함해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구정을 강조한 바 있다.

경찰 내 정보·기획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정보·기획통’으로 통했으며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경찰청 차장을 끝으로 경찰을 떠났다. 전날 열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진 구청장은 득표율 56.52%로, 검찰수사관 출신이자 직전 구청장인 국민의힘 김태우(39.37%) 후보를 큰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전북 전주 출신인 진 구청장은 경찰대(5기)를 졸업한 뒤 경찰청 기획조정과장, 서울경찰청 정보관리부장, 경찰청 정보국장, 전북경찰청장 등을 거쳐 경찰청 차장을 역임했다. / 신현수 기자

자본시장의 숲을 성장시키는  
**한국증권금융**

투자자 한 분 한 분이, 증권사 한 곳 한 곳이 모두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한국증권금융이 함께 하겠습니다. 건강한 자본시장의 숲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자본시장의 성장파트너, 한국증권금융

한국증권금융 Korea Securities Finance Corp.

# 다국적 조직 필로폰 대량반입 세관직원이 보였나...경찰 수사

## 인천공항 세관직원 4명, 보안검색대 통과 도운 혐의...압수수색·현장검증

경찰이 다국적 조직의 필로폰 대량 밀반입을 도운 혐의로 인천공항 세관 직원들을 수사 중이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공항 세관 직원 4명은 지난 1월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국내로 필로폰 24kg를 밀반입할 당시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조직원들은 필로폰을 4~6kg씩 나눠 옷과 신체 등에 숨겨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검거된 조직원들에게 이런 진술을 확보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적으로 수백g의 필로폰을 지니고 입국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4~6kg씩 무게 없이 숨겨 들어온 것도 경찰의 의심을 샀다.

경찰은 세관 직원들이 필로폰 밀반입을 눈감아준 대가로 금품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서울 영등포경찰서

보고 있다.

경찰은 최근 두 차례 세관을 압수수색하고 여러 차례 현장검증에 나섰다. 세관 직원들에 대한 통신영장도 발

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관 직원이 밀반입을 눈감아준 것으로 의심되는 필로폰 24kg은 한국, 말레이시아, 중국인으로 구성된 3개 마약 조직이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말레이시아에서 나무 도마 등을 이용한 화물과 인편을 이용해 한국에 들여온 필로폰 74kg의 일부다.

필로폰 74kg은 한 번에 약 246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시가로는 2천220억원에 달한다. 경찰은 26명을 검거해 13명을 구속 송치했다.

관세청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수사기관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협조·해명하고 있다"며 "자체적으로 확인해 본 바 여러 가지 정황상 개연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 송진영 기자

# 부산 고깃집서 강제추행 혐의 유튜버 김용호, 1심서 집행유예



김씨는 2019년 7월 부산 해운대의 한 고깃집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호의적인 분위기에서 가벼운 스킨십이었을 뿐 강제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 점, 허위 사실을 꾸며내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사건 경위 등을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연예인을 협박해 수익원을 받아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 최민성 기자

# 새벽귀가 야단치는 어머니 살해 대학생, 법정서 혐의 인정



술에 취해 집에 늦게 들어왔다며 혼내진 대학생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학생 이모(19)씨의 변호인은 11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씨 측은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심신미약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이씨는 생년월일과 주거지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질문에 담담한 목소리로 답변했다.

재판부는 존속살해 사건인 만큼 면밀한 양형 조사를 위해 이씨 측에 범행 조

사를 통한 양형 조사 신청을 주문했다.

양형 조사는 피고인과 주변인 등을 면담해 가정환경과 전과, 범행 경위, 합의 여부 등 형량을 따질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조사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같은 취지로 이씨의 삼촌과 누나 등에 대한 증인 신문도 고려하도록 했다. 이씨는 지난 8월 3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집에서 50대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범행 당일 술에 취해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는 어머니와 몸싸움을 벌이던 중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평소 잦은 과음 문제로 어머니와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 홍영찬 기자

# 피 흘리는 아내 두고 운동간 남편...의붓딸 "살인죄 적용해야"

집에서 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그냥 두고 운동하러 외출한 60대 남편이 사건 발생 5개월 만에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6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6시 12분께 인천시 강화군 자택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50대 아내 B씨를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테니스를 치기 위해 옷을 갈아입으러 집에 들렀다가 쓰러진 아내를 보고 사진을 찍어 의붓딸에게 보낸 뒤 구호 조치 없이 곧바로 외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의붓딸의 신고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 상태에 빠져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A씨가 아내를 다치게 한 뒤 방치했다고 보고 유기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B씨의 머리 부상과 관련한 의학적인 검증이 필요하며 반려했다. 이후 경찰은 2개월 동안 보안 수사를 하면서 유기치상에서 유기로 혐의를 변경해 A씨의 구속 영장을 다시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 수사 결과 B씨가 쓰러진 당일 A씨의 폭행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고 의료계의 법의학 감정에서도 부상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그러나 B씨 자녀들은 경찰 초동수사가 부실해 여러 증거를 놓쳤으며 A씨에게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상황)에 의한 살인미수죄를 적용해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을 대리하는 법률사무소 빈센트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B씨가 쓰러진 자리만 3장 촬영했고 사건 당일 유력한 용의자인 A씨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증거 보전을 위한 골든 타임을 놓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은 사건 발생 후 이를 뒤 현장에 다시 찾았지만 A씨가 집을 말끔히 청소한 뒤였다"고 덧붙였다.

/ 오정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9개 사교육업체 제재 착수

# 경찰, '문제 거래' 의혹 시대인재 압수수색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모의고사 출제 경험이 있는 현직 교사들과 대형 학원 사이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유명 입시학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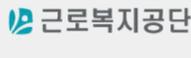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11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시대인재 분사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형 학원으로부터 다년간 수천만원의 받은 현직 교사가 100명 이상 있다는 국제청 세무조사 결과가 있었다"며 "관련해 자체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학원 강사가 수능·모의평가 출제 경험이 있는 교사에게 돈을 주고 모의고사 문항을 구매했다는 의혹 등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관련 제보를 접수해 4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24건을 공정위에 조사 요청했다.

공정위와 국제청도 최근 각각 시대인재를 비롯한 대형 입시학원에 조사관을 보내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은 교육부의 수사 의뢰와는 무관한 별건 수사라고 설명했다. / 박소희 기자

## 일터에 안심과 안정을 더하다

# 노무제공지 고용·산재 보험





- 보험설계사 · 건설기계조종사 · 방문강사 · 골프장캐디 · 관광통역안내사 · 쿼서서비스기사 · 대리운전기사 · 대출모집인 · 방문판매원 · 대여제품방문점점원 · 가전제품 설치기사
- 신용카드회원모집인 · 택배기사 · 어린이통학버스기사 · 정보통신(IT)소프트웨어 기술자 · 방과후학교강사 (24.1부터 유치원 방과후과정 어린이집 특별활동프로그램 강사까지 산재보험 적용)
- 화물차주 (건설현장 화물차주 기타운송품목 화물차주는 산재보험만 적용)

# 미국, 우크라이나 2천700억원 추가 지원...“푸틴은 북에 지원 구걸”

## 美 국방, ‘우크라이나 지원’ 회의서 발표...AIM-9M 미사일·대전차 무기 등 포함

미국이 1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에 총 2억 달러(약 2천700억원)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 패키지를 발표하며 ‘변함없는 지원’ 의사를 재확인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 NATO 본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국방연락그룹(UDCG)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자리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최신 안보 지원 패키지를 발표하게 돼 기쁘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가 지원 패키지에는 미국이 곧 우크라이나에 인도할 새로운 방공체계인 AIM-9M 미사일을 비롯해 로켓 탄약과 대전차 무기 등이 포함된다.

오스틴 장관은 “우리는 러시아가 옮겨 올 순항 미사일과 드론으로 우크라이나에 다시 폭격을 가할 것에 대비해야 한다”며 “러시아군은 잔인하고 고의적으로 우크라이나 도시와 민간인, 핵심 기반시설을 겨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우크라이나를 지속 지원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미 국방장관

이나가 다가오는 겨울철 전쟁에 필요한 지원을 보장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UDCG 회의와 관련하여 “푸틴(러시아 대통령)이 이란과 북한에 지원을 구걸하는 동안에도 이렇게 여러 국가가 한자리에 모인 것을 보니 감명깊다”고 언급했다.

NATO 국방장관 회의 계기로 열린 UDCG는 우크라이나 지원 공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50여개국 국방장관 및 당국자들의 임시 협의체로 지난 4월 출범했다. 한국도 참여 중이다.

이날로 16차를 맞은 회의에는 특히 브뤼셀을 깜짝 방문한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처음으로 대면 참석했다. 나토가 젤렌스키 대통령을 이번 회의에 초청한 것은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으로 우크라이나전에 대한 서방의 단

일대오가 흔들릴 것이라는 관측을 잠재우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오스틴 장관에 이어 발언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와 이스라엘을 공격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모두를 ‘테러리스트’로 규정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이 이뤄지던 중에도 (러시아의) 테러리스트들이 (우크라이나의) 최대 발전소 중 하나를 겨냥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달라”고 지속 지원을 호소했다.

이날 회의 계기 각국의 추가 지원 발표도 이어질 전망이다.

트로엘스 룬 포울센 덴마크 국방장관은 내년 3월 혹은 4월께 우크라이나에 F-16 전투기 첫 물량이 인도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 공영방송 TV2를 인용해 전했다.

덴마크는 F-16 전투기를 F-35A 전투기로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 덴마크가 운용 중인 F-16 전투기는 총 30대로 알려졌다.

/ 신재일 기자



마을 지켜낸 보안요원 인바 리에베르만(25)

## [이·팔 전쟁] “25세 이스라엘 여성, 하마스 격퇴하고 마을 지켰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인근의 이스라엘 집단농장(키부츠)에서 25세 이스라엘 여성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공격으로부터 마을을 지켜냈다고 외신이 전했다.

10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가자지구 인근 니르암 키부츠의 보안요원 인바 리에베르만(25)이 주민들을 이끌고 하마스 무장대원 20여 명을 사살하고 마을을 지켜내 ‘영웅’으로 칭송받고 있다.

작년 12월부터 보안요원으로 근무해온 리에베르만은 하마스의 기습 공격이 시작된 지난 7일 폭발음을 들었다.

폭발음이 평소 로켓 공격 때와는 다른 것을 느낀 그는 무기로 달려가 마을의 보안팀 12명에게 무기를 나눠줬다.

그리고 이들을 전략적 위치에 배치, 매복시키는 등 전투태세를 갖추게 했고 이후 마을로 침투한 하마스 무장대원들보

터 주민들을 지킬 수 있었다고 한다. 4시간 동안 리에베르만은 하마스 대원 5명을 사살했으며, 다른 주민들은 20명 이상의 하마스 대원을 사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에베르만의 ‘작전’으로 니르암 키부츠가 ‘요새’로 변하는 동안 인근 키부츠들은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니르암 키부츠는 하마스 무장대원들이 침입하려 했다가 격퇴당한 거의 유일한 키부츠로 전해졌다. 니르암 키부츠는 가자지구 접점에서 1.6km 정도 떨어져 있다.

리에베르만과 함께 작전에 나선된 보안요원 중 한 명의 부인이라는 일릿 파츠는 이스라엘 현지 언론에 “리에베르만은 기다리는 대신 일찍 작전 수행에 나섰고 이를 통해 수십명의 사상자가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 이철민 기자

## 中, 일대일로 정상포럼17~18일 개최...시진핑·푸틴 정상회담

### 10주년 맞아 130개국 대표 참석 예정...美 압박 견제와 ‘이·팔 전쟁’ 입장 피력 주목



올해 3월 모스크바에서 만난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

중국이 올해 최대 외교 행사가 될 ‘제 3회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정상 포럼’을 오는 17~18일 베이징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외

교부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일정을 발표하면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정상 포럼 개막식에 나와 기조연설을 하고, 중국을 방문한 손님들을 위해 환영 연화와 양자 외교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 대변인은 이번 포럼 주제가 ‘일대일

로의 고품질 공동 건설, 공동의 발전과 번영 실현”이라고 설명했다.

일대일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2년 말 권좌에 오른 뒤 2013년부터 추진한 중국-중앙아시아-유럽 간 육상·해상 실크로드 사업이다.

일대(一帶)는 중국 서부-중앙아시아-유럽을 잇는 육상 실크로드, 일로(一路)는 중국 남부-동남아시아 바닷길-아프리카-유럽으로 이어지는 해상 실크로드다. 참여국에 도로와 철도를 깔고 항만과 공항을 짓는 인프라 협력에 핵심으로, 중국의 ‘대국 굴기’를 현실화하려는 대외 확장 전략으로 평가된다.

그간 중국은 아시아·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에 인프라 건설 투자를 확대하며 일대일로 몸집을 키워왔지만, 참여국 상당수를 ‘채무의 덩어리’에 빠뜨렸다는 비판 역시 꾸준히 받아왔다.

## 강진 아프간에 구호품 도착했지만 태부족...삼·곡괭이로 구조도

### 튀르키예 첫 구호품 도착 속 탈레반 정부 “국내외 35개 구조팀, 1천여명 활동 중”

규모 6.3 강진이 잇달아 발생해 4천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는 아프가니스탄 북서부 헤라트주에 튀르키예 구호품이 도착했다.

아프간 국영 바타르 뉴스통신은 튀르키예의 첫 번째 구호품이 지난 10일 지진 피해 지역에 도착했다고 11일 보도했다.

텐트와 담요, 의약품 등으로 구성된 구호품은 터기 항공기 편으로 피해지역에 공수됐다. 구조대원 27명도 이 항공기를 통해 피해 지역에 도착해 활동을 개시했다.

주도인 헤라트에는 구호품 배분 과정을 감독할 튀르키예 정부 관계자도 배치됐다. 이 관계자는 지진 생존자들을 위해 계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튀르키예 이외의 다른 나라 구호품이 전달됐는지는 불분명하다.

유럽연합(EU)과 세계보건기구(WHO)도 현금과 식량, 의약품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지에서는 겨울을 한 달여 앞두고 밤이면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는 등 지진 생존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구호품이 더 신속히 도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 외교 사령탑인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도 이날 아미르 칸 무타기 아프간 외교장관 직무대행을 통해 사망자 유가족과 부상자들에게 위로 메시지를 전했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일 발생한 규모 6.3 강진 발생 후 닷새째인 이날도 구조작업이 계속됐다.



아프간 재난관리부는 현재 지진 피해 현장에는 국내외의 35개 구조팀이 활동 중이며, 규모는 1천명 정도라고 밝혔다. 외신은 전했다.

인프라와 장비 부족으로 구조 작업에 삼과 곡괭이도 동원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탈레반 최고 지도자 하이바툴라 아크운다자도 피해 현장을 방문하고 희생자들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헤라트주 주도 헤라트와 주변 지역에서는 지난 7일 규모 6.3 강진에 이어 강력한 여진이 여러 차례 발생했고, 이날도 규모 6.3의 강진과 두 차례 여진이 잇따랐다.

이날 발생한 지진 관련 피해 상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 안병호 기자

**IBK 기업은행**

대금대출, 예금금리, 0.1%면 어디어...

월금통장 금리는 왜 안 따져봐?

추의금 대신 내달라고 하는 사람 꼭 있죠. 수수료가 1,300원이면...

연 3% 파킹 금리로 매일 이자 지급 혜택

연 3%

타행 ATM 출금수수료 무제한 면제

0원

**슬그머니 돈이 쌓인다**

**중소기업 직장인의 통장테크**

**IBK중기근로자금융파킹통장**  
전월 50만 원 이상 급여(제 실적 보유 시, 당월(월)·연말(연) 무대해택 제공

금리 우대	수수료 무제한 면제
연 3.0% (23.6.30현재세율) 매일 정액 300만 원 이하면 300만 원 이하	당행(타행)ATM 타행(타행)출금수수료, 타행(타행)입금수수료, 타행(타행)ATM 출금수수료, 전지(타행)입금수수료

**IBK중기근로자우대적금**  
계좌(간) 12개월, 최소 1만 원 이상 월 50만 원 이내 적립

최고 연 5.7%	최고 연 3.5%	우대금리 최고 연 2.2%
(23.6.30현재세율)	우대(타행)계좌: 100만 원 이상 월 1만 원	우대(타행)계좌: 100만 원 이상 월 1만 원

SK telecom

T roaming

# 혜택이 넘치는 가족로밍의 탄생

가족 중 1명만 baro 요금제 가입하고 3,000원만 추가하면 더 넉넉해진 데이터를 온 가족이 공유하고 온 가족 baro 통화, 문자 무료



### 더 넉넉해진 baro 요금제 혜택

- 혜택1. 전 세계 188개국에서 내 폰 내 번호 그대로
- 혜택2. baro 통화, 문자 무료
- 혜택3. 0 청년 요금제 가입 고객님 상시 50% 할인

2030 부산세계박람회유치 SK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WAVE

baro 요금제 가입 시 문자는 기본 제공, T전화 앱을 통해 baro 통화 이용 시 음성 로밍 요금 미발생(한국 및 방문국 외 다른 국가로 발신 제외) 0 청년 요금제 가입 시 50% 할인 자동 적용 | 할인 횟수 제한 없음 | SK텔레콤 가족결합상품에 가입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한 증명 필수 | 자세한 내용은 T 월드 홈페이지 참고



# 최태원 “화웨이에 SK하이닉스 칩은 미스터라...우리 채널 아냐”

## 블룸버그 인터뷰서 언급...“스스로 최종 사용자라 밝힌 다른 채널”

태원 SK그룹 회장이 최근 해외 언론과 인터뷰에서 그룹 경영 승계 방향을 구상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은 11일 보도된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정말 고민 중이고 그것(승계)을 준비해야 한다”며 “내가 어떤 사고를 당한다면 누가 그룹 전체를 이끌 것인가. 승계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나만의 계획이 있지만 아직 공개할 시점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1998년 별세한 고(故) 최중현 회장의 뒤를 이어 SK그룹 총수가 됐다.

그의 장녀 윤정 씨는 SK바이오팜 전략 투자팀장으로 근무하며 신약 개발 테스크포스(TF)에 참여하고 있다.

차녀 민정 씨는 해군 장교 복무를 마치



최태원 SK그룹 회장

고 SK하이닉스에서 근무하다 휴직한 뒤 미국에 있는 원격 의료 스타트업에서 자문역을 맡고 있으며, 장남 인근 씨는 SK E&S 북미법인 패스키에서 근무 중이다.

또 최 회장은 최근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의 중국 공장에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의 수출이 가능하도록 한 미국 정부의 조치를 환영하면서 “사실 우리

제품은 메모리 반도체여서 일종의 범용 제품에 해당한다”며 “범용 제품에까지 엄격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은 중국 화웨이의 신형 스마트폰에 SK하이닉스의 메모리 칩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일과 관련해서는 “미스터라”라며 “우리가 (화웨이에 공급하는) 자체 유통망을 갖고 있었다면 (제재 이후) 절대 그 채널을 이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체 조사 결과 이는 우리 채널이 아니며, 스스로 최종 사용자라고 밝힌 다른 채널”이라고 했다.

그는 현재의 반도체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고 평가하면서 “공급 과잉이 일어나고 있고, 특히 메모리 부문이 그렇다”고 말했다. / 송원기 기자



정기선 HD현대 사장(왼쪽)과 앤 윌푸 엘코젠 창업자

## HD한국조선해양, 연료전지 기업 엘코젠에 640억원 투자

### 정기선 “미래에너지 생태계 구현의 초석”

HD현대의 조선·해양 중간 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은 에스토니아 연료전지 기업 엘코젠(Elcogen AS)과 4천500만 유로(약 640억원) 규모의 투자계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엘코젠은 고체산화물연료전지(SOFC)의 핵심부품을 제조하는 에스토니아의 글로벌 기업이다.

HD한국조선해양은 엘코젠에 대한 이번 투자를 통해 대용량 고체산화물연료전지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한다.

고체산화물연료전지는 기존 연료전지와 달리 수소 이외에도 천연가스, 암모니아, 메탄올 및 바이오연료 등 다양한 연료로부터 전기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장치로,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불린다. / 김민재 기자

HD한국조선해양은 고체산화물연료전지 시스템을 완성해 육상 발전 및 선박용 발전·추진시스템 개발, 수전해 기술 사업화를 통한 그린수소 생산 등에 본격 진출할 계획이다.

엘코젠과 향후 국내 연료전지 생산 합작법인 설립도 검토한다.

이날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체결식에서 HD현대 정기선 사장은 “이번 투자계약이 HD현대가 그리는 지속가능한 미래 에너지 생태계 구현에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앤 윌푸 엘코젠 창업자는 “엘코젠이 보유한 독보적인 고체산화물연료전지 기술이 HD현대가 목표하고 있는 그린 수소 트랜스포메이션과 탄소중립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김민재 기자

## “내년 반도체 시장, 서버 부문 회복되면 반등할 것”

세계 반도체 시장이 올해 바닥을 친 뒤 내년에는 서버 시장 회복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업황 개선으로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시장조사기관 IDC의 김수겸 부사장은 1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 코리아 회원사의 날’ 행사에서 ‘2023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전망’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 같이 예측했다.

김 부사장은 올해 반도체 시장 불황의 주 요인으로 수요 감소를 지목했다. 제조사가 생산량을 조절하더라도 수요 위축

로 재고 소진에 차질이 생기고 시장 회복을 지연시킨다는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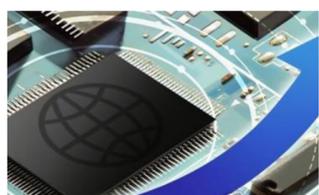
김 부사장은 “과거에는 공급 측면에서 제조사가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었지만 하반기에 수요가 생각보다 나빠졌다”며 “이 때문에 아무리 공급을 컨트롤하려 해도 문제가 생겨 감산을 하더라도 그렇게 큰 영향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버, 스마트폰, PC 등 응용 분야 생산이 줄면서 반도체 수요도 감소한 것이 반도체 시장 불황으로 이어졌다면서 “소비재는 인플레이션이 해소되면 소비

진작이 일어날 수 있지만 메모리가 회복되면 서버가 살아나야 하는데, 내년 중반쯤에는 회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버 시장은 올해 심각한 위축을 겪은 뒤 내년에는 10% 수준의 성장률을 나타내겠고, 그래픽 처리장치(GPU) 서버가 큰 성장세를 보이는 추세라고 김 부회장은 설명했다. 스마트폰(5%), PC(4%),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SSD, 4%)는 상대적으로 성장률이 낮게 예측됐다.

내년 반도체 시장 전체 규모는 올해보다 20.2% 성장한 6천213억달러로 전망되며, 올해부터 2027년까지 연평균 8.9%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김 부회장은 진단



했다. 내년 D램 수요는 18%, 낸드는 26% 각각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인공지능(AI) 열풍에 따라 각광받는 AI GPU 시장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연평균 23.2% 성장이 예상되며, 이에 탑재되는 고대역폭 메모리(HBM) 수요도 크게 증가하겠다고 김 부회장은 내다봤다. / 백서연 기자

## PF대출 ‘돈맥경화’ 푼다...이달 20일부터 대출보증 확대

### PF대출 보증한도 사업비의 50→70% 확대...보증심사 기준 완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인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오는 20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규모가 확대된다.

건설사들이 돈을 빌리기 쉽도록 길을 터 줘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김오진 1차관 주재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세부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주택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HUG, 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HUG는 이달 20일부터 공적 보증 확대 조치를 시행해 업체들이 PF 보증 혜택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PF 대출 보증의 보증 한도는 전체 사업비의 50%에서 70%로 확대하고, PF 대출 보증 요건인 ‘시공사 도급 순위 700위’ 기준은 폐지한다. 보증 심사 기준도 완화한다.

HUG는 중도금대출 보증 책임 비율을 현행 90%에서 100%로 완화해 시중은행의 원활한 중도금대출 실행도 지원하기로 했다. 미분양 PF 보증 요건도 20일부터 완화한다.

미분양 PF 보증은 5조원 공급을 목표로 올해 1월 출시했으나, 10개월가량 지난 지금까지 이용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다.

분양가의 5% 이상을 할인하는 자구노력이 있어야 보증을 제공한다라는 기존 요건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분양가 할인 외에도 발코니 확장 비용, 추가 선택 품목(옵션) 할인, 공사비 현실화 등의 보증 요건을 추가했다.

HUG는 PF 대출 보증 확대를 앞두고 오는 16일부터 PF 특별 상담창구를 연다. 이 창구를 통해 보증 심사를 원스톱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비아파트 건설사 등 사용자 지원은 이달 18일부터 시작한다.

앞서 정부는 청년과 서민층이 많이 찾는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 도시형생활

주택 건설자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1년간 한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분양주택 건설자금 대출 한도는 가구당 7천500만원, 금리는 연 3.5~4.3%다.

민간제한 공모를 통해 선정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건설자금 대출한도는 가구당 7천만~1억2천만원에서 9천만~1억4천만원으로 확대한다. 민간제한사업 공모 물량을 확대해 오는 13일부터 공모를 시작한다.

주택금융공사는 PF 정상화 펀드 운용사를 대상으로 대출금 상환 방식을 다양화한다. 보증비율을 90%에서 95%로 확대하는 보증 신상품을 내놓고, 기존 PF 보증의 경우 보증 여력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김오진 차관은 “주택공급 지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민간 건설사와 시행사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면서 “공급 병목현상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적 보증을 대폭 확대해 대기 물량 53만호가 조속히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두산이 응원합니다



### 지구환경을 지키는 두산의 전동식 건설장비

오염물질 가득한 환경으로부터 지구를 지키는 기술 인류를 위협한 환경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기술

두산은 지금, 소음과 진동, 탄소배출 없는 세계 최초의 완전 전동식 건설장비로 오염물질을 획기적으로 줄인 환경을 만들고 있으며, 사람이 직접 위험한 곳에 가지 않고도 작업이 가능한 무인화자동화 기술로, 인류의 안전을 돕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 미래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두산에선 이미 현재의 비즈니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무인시스템 없이 전기로만 구동하는 소형건설장비

두산은 지금, 내일을 준비합니다  
**DOOSAN**



# 경기도 “2026년까지 ‘임팩트 유니콘’ 기업 100개 육성”

## ‘사회적경제 쇼케이스’ 열어 비전 선포

경기도가 2026년까지 1천억원 이상의 펀드를 조성해 ‘임팩트 유니콘’ 100개를 육성하기로 했다. 임팩트 유니콘은 매출액 100억원 이상 또는 기업가치 500억원 이상인 사회적경제 기업을 지칭해 경기도가 붙인 이름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일 옛 도청사에서 ‘경기도 사회적경제 쇼케이스’ 행사를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사회적경제 실현 비전을 선포했다.

미래 비전은 ▲ 임팩트 유니콘기업 100개 육성 ▲ 성공한 사회적경제 기업 모델의 프랜차이즈화 ▲ 공공·민간기업과 함께 ‘우선구매 1조원 시장’ 조성 ▲ 사회적경제 조직 6천개→1만2천개 확대 등 4가지이다.

이를 위해 2026년까지 1천억원 규모의 ‘경기임팩트펀드’를 조성해 민간의 연구개발(R&D) 투자, 대기업-공공기관 협업을 통한 시장 확대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성공한 비즈니스모델 10개가 100개 가맹점 규모로 프랜차이즈화하도록 지원하고, 이런 임팩트 프랜차이즈를 롤모델로 시군 현장이 함께 혁신하는 계기로 삼을 방침이다. 이밖에 기존 공공구매 기업과 경기도 지자체 간 거래(B2G) 시장을 4천200억원(2022년 말 기준)에서 6천억원 규모로 늘리고, 장애인·취약계층이 생산한 제품을 민간기업이 직접 구매하는 기업 간 거래(B2B) 시



경기도 사회적경제 비전 선포하는 김동연 지사

장을 4천억원 규모로 조성하는 등 우선구매 시장을 확대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사회적경제 핵심은 한마디로 ‘사람중심 가치’로, 오늘 발표한 비전을 통해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되고 혁신 생태계가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쇼케이스는 ‘세상을 더 아름답게-경제 패러다임을 바꿀 큰 걸음’을 슬로건으로 사회적경제기업 대표들이 패션모델처럼 런웨이를 걸으며 상품과 서비스를 보여주며 기업을 소개하고, 김 지사가 무대에 올라 미래 비전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각장애인 CEO와 청각장애인 직원들이 함께 구두를 만드는 기업(구두만드는풍경), 40년간 떡 산업을 일구고 그 수익을 지역사회에 나누는 ‘요리사 어벤저스’(엔떡마을), ‘엄마나라의 언어’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나누는 베트남 엄마들(크레몽), 지적 장애인 재활치료용 인공지능 기술을 고령층 인지 재활치료에 확장 적용한 기업(마인드허브) 등 18곳이 소개됐다. 런웨이 음악은 국내 최초 발달장애인 전문연주단체 ‘드림워드앙상블’이 연주해 의미를 더했다. / 김채윤 기자



서울대병원노조, 의료공공성 강화 요구하며 파업 돌입

## 서울대병원 노조 파업 첫날 파업 장기화시 환자 불편 우려

### 우려할 만한 진료 차질은 ‘아직’

서울대학교병원 노동조합이 11일 의료공공성 강화와 인력 총원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당장 우려할 만한 진료 차질은 보이지 않고 있으나, 만약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환자의 불편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 분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대병원 시계탑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과 출정식을 열고 본격적인 파업에 돌입했다. 이 자리에는 조합원 1천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직무성과급제 폐지, 공공의료 수당 신설, 어린이병원 병상수 축소 금지 등 의료공공성 강화와 인력 총원, 실질임금 인상 및 노동조건 향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노조는 인

력 부족 문제가 곧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병원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노조원들은 출정식에서 “의료 영리화 저지, 공공의료 강화하라” “인력 위기 절박하다. 지금 당장 총원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노조가 무기한 파업을 시작했으나 아직 체감할만한 검사 지연 등 진료 대란은 벌어지지 않고 있다.

조합원은 약 3천800명으로, 의사를 제외하고 서울대병원과 서울대병원 운영 서울시보라매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임상병리사, 의료기사 등 다양한 직군으로 구성돼있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환자 생명과 직결된 업무에 투입되는 인력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들을 제외하고 매일 조합원 1천여명이 번갈아 가면서 파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 권윤희 기자

## 의정부 노동지청 “올해 관할 지역 산재 사망 전국 최다”

올해 고용노동부 산하 전국 40개 노동지청 중 의정부지청 관할 산재 사망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의정부지청에 접수된 사고 사망자는 29명으로 파악됐다. 의정부지청

관할 지자체는 경기도의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 구리, 남양주와 강원도 철원이다.

업종별 사망자는 건설업이 17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이 9명으로 뒤를 이었다.

사망 사고가 난 사업장 중 64%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의정부지청은 이날 건설 현장 20곳을 선정해 추락, 끼임, 부딪힘 등 3대 사고 유형의 위험성 등을 점검했으며, 사업장들을 불시 점검해 법 위반 사항이 있으면 시정 지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 임성준 기자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관내 건설현장 점검

## 대구 서구 ‘가스시설 사업 설명회’ 주민 반발로 10분만에 파행



11일 대구 서구 상중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한국가스공사가 연 ‘가스 공급시설 사업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이 항의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가 11일 대구 서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연 두 번째 ‘가스 공급시설 사업 설명회’가 주민들의 반발 속 퇴장으로 10분 만에 파행됐다.

이날 오후 5시께 상중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정압관리소 폐쇄”, “가스관 매설 반대”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항의했다. / 백현우 기자

이들은 “서구 주민들은 절대 반대니까 앞으로 설명회를 열지 말라”며 설명회를 듣지 않고 퇴장했다.

가스공사는 이날 설명회에서 당초 계획한 중리동 정압관리소 설비동 신축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을 밝힐 예정이었다.

정압관리소는 천연가스 배관으로 공급하는 가스의 압력을 조절하는 시설이다.

다만 가스공사는 중리동 정압관리소와 성서열병합발전소를 잇는 7.6km 길이의 천연가스 배관 매설 사업은 기존 계획대로 진행한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협의한 후 설비동 신축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을 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백현우 기자

## ‘체납 철폐’...양산시, 자동차 강제 견인·공매처분 나선다

경남 양산시는 고가 자동차를 몰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를 추적해 자동차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이러한 압류자동차 강제 견인은 강제집행 절차인 공매를 하기 위한 사전절차다.

압류자동차 소유자(체납자)와 압류자동차를 점유하는 제3자(점유자)의 행방을 파악하고, 자동차 소재지 추적과 인도 명령을 하는 등 공매가 가능하도록 점유하려고 강제 견인 수단을 동원해 공매처분 장소(차고지)까지 입고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시는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의 30.7%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운행정지 차량의 근절 및 범죄 예방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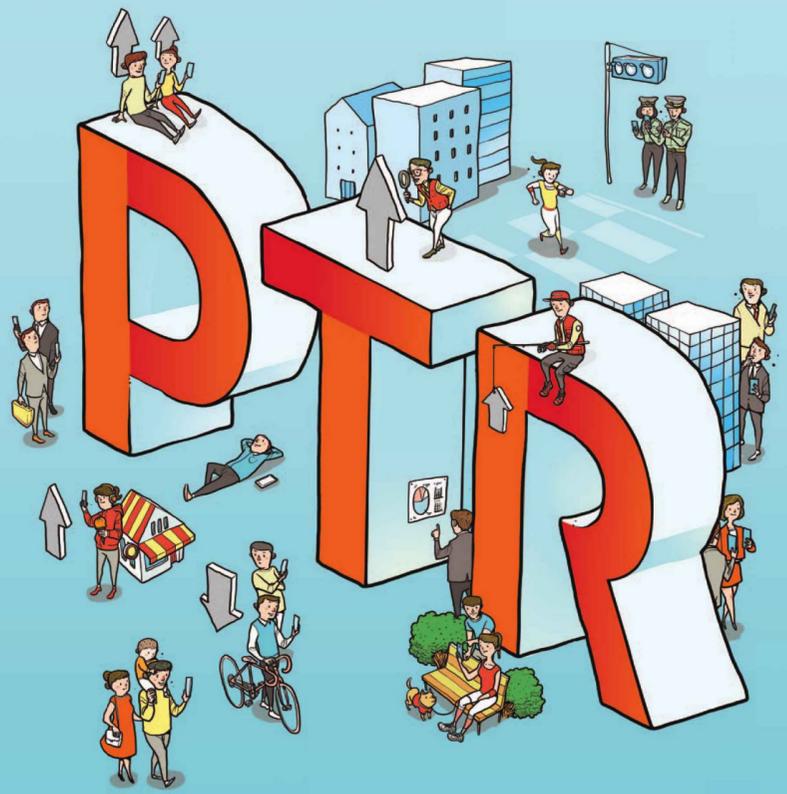
체납차량 강제견인

위해 이달부터 2개월간 ‘음면동 합동주야간 번호관 집중 영치’에 돌입했다. 시 영치 대상 차량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체납발생일부

60일을 넘긴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3천741대(52억원)와 운행정지명령 위반 차량이다. / 김유정 기자



## 기술가치투자 이제 퍼트러(PTR)! SK증권 PTR랩



**PTR : 추가기술비율(Price Technology Ratio)로 상장사가 보유한 특허가치를 추가와 비교하는 지표임. PERO나 PBR처럼 기술가치대비 주가가 고평가 또는 저평가 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음.**

**고객행복센터 1599-8245**

- ※ 투자자는 랩 계약에 대하여 SK증권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이 랩 계약은 예금보통예금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 이 랩 계약은 자산가액 변동, 환율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 가입하시기 전에 고객님의 투자성향과 상품의 투자위험등급을 필히 확인하신 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 이 랩 계약의 선취수수료는 없으며, 운용보수 연 1.5%(분기별 0.375% 후취), 성과보수는 고객과 별도 협의의 매매 시 해당 상품의 약관, 설명서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21-05246호  
(2022.11.19~2023.11.18)





2030 부산세계박람회유치  
SK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 미래를 향해, 미래를 향해

변화무쌍한 바다를 향해하는 것은  
때로는 방향을 바꿔야 할 때도,  
또 속도를 조절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함없는 것은 목적지를 향해  
꾸준히 향해한다는 것입니다.

미래에도, 미래의 미래에도  
행복은 지속가능해야 한다는 믿음으로  
SK도 미래를 향해,  
미래를 향해하겠습니다.



WAVE

더 나은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위한 행동  
World EXPO 2030 BUSAN의 시작!  
[www.thewave.net](http://www.thewave.net)



# 보훈부-광주시 '정율성 기념사업' 정면충돌... "중단" VS "안돼"



국가보훈부는 11일 광주시와 전남 화순군 등에 '정율성 기념사업'을 중단하고 이미 설치된 기념시설을 철거하라고 권고했다. 사진은 이날 전남 화순군 능주초등학교 건물 벽면에 조성된 정율성 벽화의 모습

국가보훈부와 광주광역시 '정율성 기념사업' 존치를 놓고 11일 정면으로 충돌했다. 보훈부는 광주시와 화순군 등에 '정율성 기념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이른 시일 내에 이미 설치된 정율성 흉상 등 기념시설도 철거할 것을 권고했다. 만약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 명령을 즉각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정율성 기념사업은 1988년부터 지속돼 온 한중 우호 교류 사업으로 위법한 사항이 없다"고 반박하고 시정 권고를 수용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박민식 "정율성, 북-중 국가 작곡하고 6·25 남침한 인물"**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보훈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율성은 6·25전쟁 당시 북한 인민군과 중공군의 사기를 북돋운 팔로군 행진곡과 조선인민군 행진곡 등 국가를 작곡했을 뿐 아니라 직접 적군으로 남침에 참여해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하는데 앞장선 인물"이라며 정율성 기념사업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정율성 기념사업은 그가 나고 자란 광주 남구와 동구,

전남 화순군에서 추진됐다. 광주 동구 불로동에서는 최근 논란의 중심이 된 정율성 역사공원이 조성 중이며, 이 사업에는 연말까지 48억원이 투입된다. 남구 양림동에는 거리 전시장과 최근 보

수단체 회원이 훼손한 흉상 등을 갖춘 정율성로(路)가 이미 설치됐다. 정율성이 다녔던 학교가 있는 전남 화순군 능주면에는 전시장, 능주초등학교에는 흉상과 벽화 등이 있다.

박 장관은 정율성 기념사업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목숨 바친 호국영령과 그 유가족의 영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법 184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자체의 사무에 대해 조언 또는 권고나 지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장관은 "지자체의 자율성은 존중하지만 대한민국

의 정체성에 배치되는 인물에 대한 기념사업의 설치, 존치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면서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 명령을 즉각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88조에는 지자체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될 경우, 주무 장관이 서면을 통해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광주시 "지방자치단체 사무이며 위법사항 없어"**  
광주시는 보훈부의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해당 권고와 이어질 시정 명령을 수용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광주시는 입장문을 내고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등 기념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이며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따르면 자치사무는 위법한 경우에만 주무부 장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며 노태우 정부 때부터 지속돼 온 정율성 기념사업은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광주시는 또 "정율성 생가터 복원사업인 역사공원 조성 사업 완료 시기에 맞춰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해 지혜롭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은 이날 "보훈부로부터 공문이 오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으며, 화순군도 전반적으로 사안을 검토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정율성 벽화가 있는 화순 능주초의 서재숙 교장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정율성 기념물을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태구 의원은 "학교 벽면에 초상화가 그려져 있고, 교내에 동상, 기념공원, 기념 교실까지 만들어 놨다면 어린아이들이 (정율성은) 본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인식하지 않겠나. 폐기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교장은 "화순군청에 철거 조치를 해 달라고 요구했고, 행정절차에 의해 철거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 송원기 기자



안전보안관이 동 주민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다.

## 관악구, 강력범죄 대책 사각지대 줄이고 동주민센터 보안관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2027년까지 436억 원을 투입해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생활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구는 '안심 관악' 조성을 위해 ▲현장 순찰 강화 ▲범죄예방 시설 확충 ▲범죄 예방 사업 확대 ▲생활안전 대응체계 구축 등 4개 분야에서 23개의 대책을 추진한다. 구는 지난달 '365생활안전팀'을 신설한 데 이어 이달 초 강력범죄 예방 생활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구는 ▲CC(폐쇄회로)TV와 보안등 사각지대 전수조사 실시 후 취약 지역 우선 설치 ▲상시 순찰요원 배치(등산로·공원 50명, 신림사거리 일대 10명) ▲안심귀갓길 동행 인력 2배 확대 ▲유관 기관 협업 강화를 위한 지역치안협의회 확대 개최 등을 추진한다.

분야별로 보면 구는 ▲금길 안전지킴이 ▲지역 축제 안전 강화 ▲동 주민센터

안전보안관 시범 운영사업 등으로 현장 순찰 강화에 나선다.

특히 1인 가구와 단기 거주자가 많은 대학동 주민센터를 시범사업 동으로 선정해 안전보안관 1명을 배치하고 12월까지 3개월간 시범 운영한다.

범죄예방 시설(인프라) 확충을 위해 ▲CCTV, 보안등, 비상벨 설치 ▲국가지정번호 표지판 운영 ▲안심골목길 지정, 조성사업 확대 등을 추진한다.

범죄예방 사업 확대 방안을 통해 ▲안심귀가 스카우트(동행) ▲안심마을을 보안관 ▲안심이웃을 확대 운영하고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경찰청 호루라기 등 안심장비를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생활안전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대책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주기적인 지역치안협의회 등 유관기관 협업을 활성화해 안전 대응 체계를 정비해 나간다.

/ 권정석 기자

## 2024 수성국제비엔날레 준비 착착...프리비엔날레 개최



2024 수성국제비엔날레 사전 행사인 프리비엔날레 전시회

2024 수성국제비엔날레 사전 행사인 프리비엔날레가 11일 개최됐다. 프리비엔날레는 수성국제비엔날레의 비전과 구성을 미리 소개하고 홍보하는

자리다. 수성구는 이 행사에 국내외 건축·조경 전문가 80여명을 초청했다. 수성구 공공건축 프로젝트와 국제비엔

날레를 알리는 전시회도 시작했다.

두산동 꿈꾸는 예술터에서 매주 월요일을 제외한 이달 29일까지 관람이 가능하다. 호텔수성에서는 수성국제비엔날레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포럼이 열렸다.

김대권 구청장은 "수성구가 비엔날레 행사를 초석으로 문화도시·예술도시로 거듭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 수성국제비엔날레는 '관계성의 들판(Relational Fields)'이란 주제로 내년 하반기 열릴 예정이다.

수성못과 망월지 등을 배경으로 국내외 건축·조경가들이 작품(건축물) 설계에 참여한다. 수성구는 지방소멸 위기 속 특색있는 조경 건축물을 통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 양희진 기자

## 울산시, '청량~옥동' 국도 마무리 점검...19일 오후 개통

### 637억 들여 1.59km, 왕복 4차로 부산 노포동~울산 매곡동 연결

울산시는 청량~옥동 국도 구간의 19일 개통을 앞두고 11일 사업 현장에서 마무리 점검을 벌였다. 김두겸 울산시장도 담당 공무원들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공사 추진과 개통 준비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어 갈ტი교차로, 문죽교차로, 청량교 등을 차례로 둘러보면서 시공 상태와 주행 안전 등을 확인했다. 청량~옥동 국도 건설사업은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와 남구 옥동을 연결하는 연장 1.59km, 왕복 4차로 규모 도로를 조성하는 것이다.

주요 시설물로는 2개 임체 교차로와 3개 교량이 있다. 지난 2018년 11월 착공했으며, 총사업비로 국비 637억원이 투입됐다.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노포동~울산 북구 매곡동을 잇는 총 연장 46.5km 규모의 국도 7호선 우회도로 건설사업의 마지막 구간이다. 부산 노포동에서 양산 용당동까지는 2019년 4월, 문죽교차로까지는 2020년 12월에 각각 개통됐다. 또 남구 옥동~북구 매곡동 구간은 지난해 10월 개통됐다.

청량~옥동 구간은 19일 오후 1시부터 개통돼 정상 운영되며, 개통식 행사는 전날인 18일 오후 3시 열린다.



김두겸 울산시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11일 오전 청량~옥동 국도 건설현장을 방문해 개통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김두겸 시장은 "출퇴근 시간 차량 정체가 발생하는 두왕로와 온산로를 우회하는 도로가 만들어졌다"며 "옥동교차로에서 개통하는 구간을 타고 국도 14호선을 이용하면 온산공단까지 이동 거리가 단축돼 교통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민혁준 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 여행할 때도 하나뿐인 내편

해외 수수료는 걱정 없는 편  
환율 걱정 없이 환전하는 편  
낮선 화폐도 두렵지 않은 편  
그래서 이번 여행도 더 신나는 편

지금 떠나봐, 트래블로그로 하나뿐인 여행으로!

18개국통화 환전 수수료 무료 (-8/31)  
해외 ATM 수수료 부담 제로  
해외 가맹점 수수료 면제  
목표환율에 맞춰 자동 환전 가능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하나저신신탁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핀드서비스 · 하나금융타이어 · 핀크

하나금융그룹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상품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발급이 부작업인 경우(개인신용정보 보유 등)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카드이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결제일에 상환하여야 합니다.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액이 과도할 경우, 권유된 개인신용평가가 미달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평가가 미흡시 금융거래에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 연리율을 연월할 경우, 모든 연리율을 변별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약관은 홈페이지 A-23-1127 (2023.06.22~2024.05.31)



#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개막 100일 앞두고 성화 투어 시작

## 11일 서울광장 출발해 80일간 전국 주요도시·강원도내 일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개막 100일을 앞두고 국민의 성공 개최 열망을 담아 성화 투어의 시작을 알리는 'G(Game)-100' 행사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렸다.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기념행사에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진태 강원 특별자치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진중오·이상화 강원 2024 공동 조직위원장, 강원 2024 홍보대사 김연아·윤성빈·김예리·박재민이 참석해 국민의 관심을 끌어 올렸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유산을 이어갈 2024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은 내년 1월 19일~2월 1일 강원도 평창, 강릉, 정선, 횡성에서 개최된다. 전 세계 80여개국에서 온 1천900명의 선수는 7개 경기, 15개 종목에서 실력을 겨룬다. 또 청소년올림픽의 핵심 가치인 다양한 문화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우애 증진과 올림픽 정신 전파에 앞장선다.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성화 투어



유인촌 장관에게 성화 전달하는 오세훈 시장

홍보였다.

지난 3일 근대 올림픽 발상지인 그리스에서 채화된 성화는 그리스 내 봉송을 거쳐 8일 한국에 도착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킨레톤 금메달리스트인 윤성빈이 박지원(소프트트랙), 이종원(육상), 양승주(육상), 윤서진(피겨스케이팅), 소재환(봅슬레이) 5명의 선수와 함께 성화 투어의 시작을 국민께 고했다.

진중오·이상화 공동위원장이 성화 랩프에서 불씨를 첫 번째 성화봉에 옮겨 붙이고, 각 점화지는 성화봉으로 희망의 불빛을 전달했다.

이어 김연아 홍보대사가 '청소년들에게 스포츠의 즐거움을 알리고, 성장을 통해 빛날 수 있게 돕는다'라는 의미를 담은 캐치프레이즈 '함께 빛나자! SHINE TOGETHER!'를 소개했다.

출발 선언과 함께 서울광장을 출발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성화는 80일 동안 부산(10월 14일), 세종(10월 25일), 제주(10월 28일), 광주(11월 4일) 등 전국 주요 도시와 강원도 내 18개 시도를 차례로 돈다. 전국 봉송을 마친 뒤 12월 29일부터 대회 개막 전날인 2014년 1월 18일까지 사회 소외 계층을 방문하는 성화 특별 투어가 이어진다.

유인촌 문화부 장관은 "강원2024'는 전 세계 청소년들이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연대하고 협력하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이번 대회가 성공을 넘어 세계인들이 가슴 속에 기억하고 환호하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남은 기간 철저히 준비하겠다. 개최 50일 전, 10일 전, 개회식까지 전 국민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라고 했다.

진중오·이상화 공동위원장은 "청소년들이 꿈과 열정을 펼칠 수 있는 대회를 만들겠다"며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 최준용 기자



귀국 인터뷰하는 김하성

## 김하성, '위풍당당' 귀국 트레이드 대상자에서 당당한 주전으로

### "시즌 막판 체력 문제 비시즌에 더 보완할 것"

1년 전 "주전 경쟁을 잘 이겨내겠다"라는 말을 남기고 미국으로 떠났던 김하성(27·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이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귀국했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2023 시즌을 마친 김하성은 1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지난해보다는 좋은 성적을 냈던 것 같다"라며 한 시즌을 돌아본 뒤 "시즌 막판엔 성적이 떨어져 아쉬움도 남는다"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 현지에서 (개인 코치인) 최원재 코치님과 많은 훈련을 통해 타격폼을 수정한 것이 장타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됐다"며 "아직은 보완해야 할 점이 있기에 비시즌에 더 신경 써서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하성은 올 시즌 불발이 1번 타자이자 주전 2루수로 샌디에이고 공·수의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올 시즌 성적은 152경기 타율 0.260, 17홈런, 38도루로 2022시즌(150경기 타율 0.251, 11홈런, 12도루)과 비교해 큰 폭으로 올랐다.

시즌 막판 타격 난조로 기록이 떨어지긴 했지만, 김하성은 몸을 아끼지 않는 허슬 플레이와 특유의 수비력, 작전 수행 능력으로 샌디에이고의 침범 역할을 톡톡히 했다. 사실 김하성은 1년 전까지 팀 내 입지가 불안했다.

샌디에이고는 지난해 겨울 리그 정상급 유격수인 산더르 보하르츠를 영입했

고, 현지 매체들은 김하성의 트레이드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실제로 A.J. 프렐러 샌디에이고 단장은 타 구단에서 김하성의 트레이드를 문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하성은 불투명한 상황에서 훈련에 전념했고, 올스타급 내야수가 차고 넘치는 샌디에이고 팀 내 주전 경쟁을 이겨냈다.

김하성은 여전히 더 높은 곳을 바라본다. 그는 "사실 시즌 막판에 타격 성적이 크게 떨어졌다"라며 "체력 문제가 컸던 것 같다"고 돌아봤다. 이어 "많은 포지션을 돌아다녔고, 도루를 많이 하면서 잔 부상을 생겼다"라며 "(비시즌에) 이런 부분을 잘 보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하성은 만족감보다 아쉬움을 더 드러냈으나, 현지에선 김하성을 내세워 2루수 골드글러브의 유력 후보로 꼽고 있다. 골드글러브는 리그 최고의 수비수에게 주는 상으로, 김하성은 지난 시즌에도 최종 후보에 오른 바 있다.

김하성은 "욕심이 안 난다면 거짓말"이라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기대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하성은 본인을 바라보며 MLB 진출을 꿈꾸는 후배들을 향해서도 조언을 남겼다.

그는 "적지 않은 금액을 받고 MLB에 진출했는데,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 후배들이 악영향을 받지 않을까 걱정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내가 더 잘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뛰었다"고 말했다.

/ 오정수 기자

## '프림 23점' 현대모비스, 정관장 따돌리고 KBL컵 4강 선착

### LG는 이재도·양홍석 공백에도 첫 경기 가스공사 격파



현대모비스의 프림(44번)

프로농구 울산 현대모비스가 지난 시즌 통합 챔피언 안양 정관장을 꺾고 KBL 컵대회 4강에 진출했다.

현대모비스는 11일 군산 월명체육관에

서 열린 2023 MG새마을금고 KBL컵 조별리그 D조 경기에서 정관장을 100-82로 꺾었다.

이번 대회에선 2~3개 팀이 한 조로

별리그를 치른 뒤 각 조 1위 4개 팀이 진출하는 토너먼트로 우승팀을 가린다.

D조는 정관장과 현대모비스 두 팀뿐이라 두 차례 맞대결로 4강 진출팀이 결정됐다. 9일 1차전에서 쫓던 현대모비스가 이날은 이기며 두 경기 합계 1승 1패로 두 팀이 갈아졌는데, 1차전 땀 정관장이 7점 차(91-84)로 이기고 이날은 현대모비스가 18점 차로 승리해 득실 차에서 앞선 현대모비스가 4강 한자리를 먼저 꿰찼다.

지난 시즌에 이어 현대모비스에서 뛰는 게이저 프림이 23점 6리바운드, 새 얼굴 케베 알루마가 20점 6리바운드를 올렸고, 베테랑 함지훈이 12점을 보탤다.

정관장에선 박지훈이 22점 8어시스트 7리바운드로 분투했다.

이날 8점 차 이상으로 이겨야만 4강 진출

이 가능했던 현대모비스가 초반부터 빠른 공격을 앞세워 주도권을 잡았다. 1쿼터에만 10점 4리바운드를 뽑아낸 프림의 활약과 3점포 3방에 힘입어 29-17로 앞서 나갔다.

현대모비스는 2쿼터 중반 20점 차 넘게(40-19) 도망가기도 했으나 박지훈의 존재감이 살아난 정관장이 40-52로 틈을 좁히며 전반전을 마쳤다. 후반 들어 10점 안팎의 격차가 이어지다가 정관장이 3쿼터 종료 1분 28초 전 66-72, 6점 차로 따라붙어 4강 진출이 가능한 점수에 진입하기도 했으나 이후 고비를 넘지 못한 채 돌아섰다. 앞서 열린 B조 경기에서는 창원 LG가 대구 한국가스공사를 97-85로 제압하고 첫 경기 승리를 쟁겼다.

LG, 부산 KCC, 가스공사로 구성된 B조에선 LG와 KCC가 1승씩 거둔 뒤 13일 맞대결을 남겨뒀고, 가스공사는 KCC와 LG에 모두 패하며 2전 전패로 탈락이 확정됐다. / 손민혁 기자




#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하여 혜택받고 내 고향 살리는

## 고향사랑 기부제

세액공제 / 담례품 제공

기부

고향사랑

지자체

담례품 구입

농축산물 공급

농업인

우리 고향에 힘이 되는 법- 기부를 통한 나눔입니다

당신의 작은 기부도 농촌에는 큰 힘이 되니까

고향에 기부하고

우리 농축산물을 선물로 받으세요!

**기부액의 30% 상당 담례품 지급**  
지역 농축산물 및 지역 특산품 등

**연말 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  
기부금액 10만원 이하: 100%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 16.5% 공제

**기부금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 도모**  
지방재정 보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고향사랑기부 신청 방법**

> 시행: 2023년 1월 1일

- 온라인: 정부 종합정보시스템(고향사랑 e음)

- 오프라인: 농협은행·농협

\*기부 한도액 1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법인 기부 불가)



World EXPO 2030  
BUSAN, KOREA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응원합니다

# 나영석 PD “콩콩팔팔”은 힘 뻗 슴슴한 맛…밥친구 삼아주시길

## ‘절친’ 사이 이광수, 김우빈, 도경수, 김기방 출연…먼저 섭외 후 프로그램 기획

“출연진 4명을 찍으려면 보통 촬영장에는 스태프가 적어도 30명 정도 있어요. 저희는 현장에 출연진 4명, 작가, 감독 4명 해서 총 8명이었습니다.”

나영석 PD가 새 예능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이하 ‘콩콩팔팔’)로 돌아온다. ‘또 시골?’, ‘또 농사?’, ‘또 요리?’라는 시선도 적지 않은데, 나 PD는 “이번에는 촬영과정이 달랐기 때문에 결과도 다를 것”이라고 자신했다.

11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엘리어나호텔에서 열린 tvN ‘콩콩팔팔’ 제작발표회에서 나 PD는 “어디서 본 것 같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조금 다르기는 하다”고 웃어 보였다.

‘콩콩팔팔’은 친한 친구들끼리 농촌에서 작은 밭을 일구게 됐을 때 벌어지는 일들을 유쾌한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풀어낸 프로그램이다. 절친한 사이로 알려진 이광수, 김우빈, 도경수, 김기방이 출연한다. 보통 예능 프로그램들은 기획 후 출연



진을 섭외하기 마련이지만, ‘콩콩팔팔’은 섭외가 먼저였다고 한다.

나 PD는 “이광수씨가 친한 친구들과 같이 프로그램해보고 싶다고 먼저 연락해 왔다”며 “네 분과 함께 무엇을 하면 좋을까 오랜 기간 기획하다가 콘셉트를 농사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삼시세끼” 등 농사짓는 테마의 프로그램을 전에도 해본 적 있지만, 이번

에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농사도 음식도

“머릿속에 갖고 있던 테마는 흠비디오

“머릿속에 갖고 있던 테마는 흠비디오

“머릿속에 갖고 있던 테마는 흠비디오

있어요. 촬영 인원을 축소하고 나니 더 편안하고, 무겁지 않은 분위기가 만들어졌죠. 동네 분들과도 스스럼없이 친해질 수 있었고, 출연진의 케미도 더 자연스럽게 담을 수 있었습니다.”

나 PD는 ‘콩콩팔팔’을 “힘을 뻗 슴슴한 맛의 프로그램”이라며 “‘밥친구’라는 단어와 가장 잘 어울리는 예능일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콩콩팔팔’을 통해 첫 예능 고정 출연에 도전하는 김우빈은 “처음이라서 긴장도 됐고, 경험해보지 못한 감정들을 느꼈다”며 “마음 같아서는 시즌7까지 하고 싶다”고 말했다.

‘황금 마네’로 활약했다는 도경수는 “형들과는 자주 만나서 쇼핑하고, 식사하는 친한 사이인데 평소의 모습이 똑같이 담긴 것 같다. 너무 편하고 재밌었다”고 돌아봤다.

13일 오후 8시 40분 첫 방송. / 김현주 기자



## 임순례 감독·강말금 ‘날아라 펭귄’ 배리어프리 제작 참여

배리어프리영화위원회는 임순례 감독이 연출하고 배우 강말금이 내레이션에 참여한 영화 ‘날아라 펭귄’ 배리어프리 버전을 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인권 관련 영화를 배리어프리 버전으로 선보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나온 작품이다. 배리어프리 버전은 시·청각 장애인을 위해 화면을 설명해주는 음성 해설이나

화자의 대사, 소리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한글 자막을 넣어 제작한 영화다.

‘날아라 펭귄’은 인권위가 2009년 제작·기획한 유니버설 영화로 교육열과 채식주의자, 기러기 아빠, 황혼 이혼 등으로 선보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나온 작품이다. 문소리, 박원상, 손병호, 최규환, 박민환 등이 출연했다. / 신지호 기자

## 블랙핑크 제니, 솔로곡 ‘유 & 미’ 재즈 버전 라이브 공개



걸그룹 블랙핑크의 제니가 솔로곡 ‘유 & 미’(You & Me) 재즈 버전 라이브 영상을 공개했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11일 밝혔다.

이 영상은 지난 6월 사넬 패션쇼 무대에 흐른 ‘유 & 미’ 재즈 편곡 버전을 제니가 라이브로 선보인 것이다.

제니는 신비로운 보름달을 배경으로 흡인력 있는 눈빛과 풍부한 감정을 드러냈다. 잔잔하게 흐르는 피아노 선율 위로 자신만의 독특한 음색을 자랑했다.

‘유 & 미’는 특별한 홍보 없이도 전 세계 60개국 아이튠즈 ‘톱 송 차트’ 1위에 올랐다. 이 곡의 퍼포먼스 비디오는 유튜브 ‘24시간 내 가장 많이 본 동영상’ 1위 도 차지했다. / 오현주 기자

## ‘지구별 별책부록’ 유세윤 “환경문제 부드럽게 전하는 방송”

### 환경 전문가 ‘유 박사’로 변신…“환경 다큐에 예능 접목”

“기왕에 환경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딱딱하지 않고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마침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하신다고 해서 더할 나위가 없다고 생각했죠.”

환경 다큐멘터리의 정보와 공익성에 예능의 웃음과 재미를 더한 코미디언 유세윤의 ‘비공개다큐- 지구별 별책부록’(이하 ‘지구별’)이 오는 13일 첫 방송된다.

유세윤은 11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KBS 1TV 시사교양 프로그램 ‘지구별’의 제작 발표회에서 “여러분이 그동안 보지 못했던 다른 형식의 환경 다큐멘터리가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지구별’은 자연 다큐에 코믹 콩트를 결합하는 새로운 시도를 지구를 이해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유세윤이 70년 넘게 환경을 연구한 ‘닥터유’로 출연해 자연과 관련한 이야기를 웃음과 함께 풀어낸다.

2부작 파일럿 프로그램인 ‘지구별’은 오는 13일과 20일 오후 7시 40분 방송된다.

공개된 예고 영상에는 첫 방송분의 내용이 담겼다. 국내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된 소풍구리를 찾아 제작진이 몽골로 떠나는

모습이 그려졌다.

연출을 맡은 김슬기라 PD는 “다큐와 예능을 접목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고 생각했다”며 “지금까지는 자연과 환경을 주제로 정통 다큐를 해왔다면 이번 프로그램은 재미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별책’처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김 PD는 또 “환경 문제에 점점 관심이 커지는데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콘텐츠는 아직 한정적”이라며 “즐길 수 있는 환경 콘텐츠가 나와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윤기영 작가는 “다큐를 보면서도 웃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라며 “진정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나오는 자잘한 웃음이 깔린 재미있는 다큐”라고 프로그램을 설명했다.

/ 한형주 기자

## 이영지·원밀리언, 청소년 응원곡 음원·안무 저작권 기증

가수 이영지, 쇼콰이어 그룹 하모나이즈, K팝 댄스 크루 원밀리언 등이 우리나라 청소년을 응원하는 노래 ‘파이어’(FIRE) 음원과 안무의 저작권을 국가에 기증했다고 한국저작권위원회가 11일 밝혔다. ‘파이어’의 음원과 안무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주관하는 저작권 기증 프로젝트의 하나로, 내년 2024강원청소년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응원하고자 제작됐다.

이 노래의 음원은 강규용 프로듀서가 총감독을 맡고, YG엔터테인먼트 소속 김민기·김승남 프로듀서가 제작을 총괄했다. MZ 세대 사이에 인기가 높은 가수 이영지가 가창과 작사·작곡에 참여했다. 가창에는 쇼콰이어 그룹 하모나이즈도 함께했다. 노래의 안무는 K팝 대표 댄스 크루 원밀리언이 음원에 맞춰 제작했다.

/ 장수경 기자

**경찰연합신문** www.koreapolicenews.com

회장·발행인 송원기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여의도동) 국회본관 175
편집인 최영민	대표전화	1533-1545 / 팩스: 0508-9192546
인쇄소 아이피디	E-mail	unionilbo12@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이민영	등록번호	서울, 아53015 서울, 가50142

구독 광고 문의: 1533-1545 /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World EXPO 2030 BUSAN, KOREA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KOTRA가 응원합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으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KOTRA가 되겠습니다.

바이어 발굴 해외투자 진출

수출애로 상담 투자유치 지원

무역·투자의 모든 것, KOTRA와 상담하세요!

☎ 1600-7119

전 세계 129개 무역관이 도와드립니다.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무역·투자 종합 상담 ☎1600-7119

SAMSUNG

# Galaxy Z Flip5



자세한 제품 정보는  
삼성닷컴에서 확인하세요



World EXPO 2030  
BUSAN, KOREA

부산세계박람회유치를 응원합니다

samsung.com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된 이미지입니다  
\*플렉스 모드가 동작하는 각도는 75°-115°이며, 해당 범위를 벗어날 경우 안전히 펼쳐지거나 접힐 수 있습니다